

제주~칭다오 항로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 중앙정부 감사 위한 서명 운동
구상권 청구 사전 단계... 道 이중 감사 받을 수도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로 인한 항 세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 소송 운동이 본격화했다.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민선 8기 도정이 법령까지 어기며 항로를 개설해 도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제주도의 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칭다오 직항로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감사청구 서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8일 빈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제주항에 오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최대 손실보전

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지방교부금 감액으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로 인해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할 손실은 최대 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청구 목적의 주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성인 도민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가 공공 지출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주민들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주민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감사 청구를 거쳐 지자체 법령 위반 또는 업무 태만 행위를 확인한 감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도 감사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 청구 사건에 대해선 중앙 행정부처도 감사를 할 수 있게 예외를 두고 있다.

관건은 행안부가 감사에 실제 착수하는지이다. 지방자치법은 이미 다른 기관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감사 중일 경우 해당 사건을 주민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도 감사위는 지난 7월부터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에 대한 특정 감사에 돌입한 상태다.

단 예외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이 감사 중이더라도 주민 감사 청구 사건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주민 소송의 목적을 뚜렷하게 띠고 있다면 이중 감사도 가능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이런 규정을 의식해 "행안부가 기각 사유를 찾지 못하게 도민 뜻을 모으겠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사전 절차 단계로 감사 청구에 나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 자치 감사 기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감사를 요청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청구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행안부가 감사에 나서면 제주도는 도 감사위 조사를 포함해 이중 감사를 받게 된다. 또 감사 결과 위법으로 드러나면 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도 받는다.

이상민·양유리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

강희만기자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제주 총력전

도, 전담팀 구성해 마사회·공항공사 등 전략 수립
제주도의회도 9일 기자회견 열고 유치전 힘 보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범도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제주도의회도 유치 촉구에 힘을 보태면서 공공기관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공공기관 제주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유치 희망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5곳이다.

지난 8일에는 박천수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공기관 제주 유치 전담팀 회의를 열고 희망 기관별 유치 전략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치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석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과 그동안의 제주 유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핵심 회

망기관별 담당부서의 역할과 향후 중앙부처·기관 대상 유치활동 계획을 점검했다.

기관별 담당부서는 그동안 마련한 유치제안서를 최신 정부 정책과 기관 여건에 맞게 보완해 소관 중앙부처와 기관에 전달·설명하고, 기관 임직원과 노동조합 등 접촉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관 방문과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유치제안서에는 기관별 유치 희망사유와 제주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국정과제 및 제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사업 등이 담겨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이전 원칙과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유치 논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입지·정주 지원방안도 보강할 계획이다.

도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범도민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현장 홍보를 추진하고, 기관별 관련 산업계와 대학, 단체

의 참여를 이끌어 공동 건의에 나선다.

제주지역 정계에서도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동참과 의지를 표명하고 제주 유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의 유치 희망기관 5곳에 더해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 6개 기관의 제주 이전 희망을 피력했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에 몰린 기회를 지역으로 넓히고, 어디에 살든지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일"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주가 제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제주의 정당한 요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수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2026 JDC와 함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

한라일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올해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를 총 2회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알림

▶일시 : 9월 12일(토) 오전 10시~낮 12시

▶장소 : 한라일보 3층 회의실(제주시 세파로 154)

▶모집대상 : 20명 내외(초등학교 1~3학년, 선풍술 마감), 참가비 무료

▶신청기간 : 9월 11일(금)까지

▶접수방법 : 링크 (<https://forms.gle/FYRaBFyTwYmfsvTLA>) 또는 QR코드
*선풍술 접수인만큼 접수 후 꼭 확인 전화 또는 문자

▶교육내용 : 그림책과 NIE 다르다고 이상한 걸까?_ 같은 그림, 다른 제목

▶문 의 : 010-4369-3011

공동기획 : 한라일보 · JDC

도민과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

10,000 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대축제가 제주에서 펼쳐집니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6. 9. 11. ~ 9. 16.

개회식 | 2026. 9. 11.(금) 18:30 · 제주월드컵경기장

폐회식 | 2026. 9. 16.(수) 15:30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